함평교육청, '미래교육의 서막' 함평창의융합교육관 개관

전남 창의융합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개관식 개최
최첨단 교육기자재 구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현

전남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구축사업의 서막이 열렸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함평창의융합교육관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함평창의융합교육관 개관식과 더불어 전남 창의융합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 도의회의원, 시·군교육장, 마을교육단체,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 등 각개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함평창의융합교육관은 2019년에 폐교된 함평여고 건물을 2020년부터 시설물 안전 보강 및 리모델링, 부분 증축을 통해 2021년 말에 완공되었다. 총 3층으로 1층은 유아 놀이터(꿈샘), 2층은 마을교육 공동체 공간(꿈마을), 3층은 창의융합교육 공간(꿈마당)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3층 꿈마당에는 AI교실, 영상 제작실, 코딩룸, 로봇·드론 경기장, 메이커 교육실 등 기존 교육시설과의 차별화에 힘썼다.

또한 AR, VR, MR, CNC, 3D프린터, 투명 OLED,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교육기자재를 구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평교육지원청 범미경 교육장은 환영사에서"함평창의융합교육관 시설의 구축과 개관은 이제 시작일 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발히 운영하여 함평교육가족 모두가 창의융합교육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함평여자중학교 설민경 학생은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우리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빨리 이용하고 싶다."고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함평창의융합교육관 개관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 시·군에 창의융합교육관이 개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교육청의 미래교육에 대한 발 빠른 행보와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꾸준한 열정을 기대해 본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성과 평가… '전국 1위' 사업비 최다 배정

순천대학교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지난 11일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11개 시·도 지원센터의 2021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2022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다.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전남6차센터)는 인증평가, 모니터링, 현장코칭, 판로지원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1순위 그룹으로 평가받으며 사업비 최대액인 12억 1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배정받았다.

지난해에도 모든 항목에서 1순위 그룹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증사업자 지원기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증경영체를 위해 전남6차센터만의 혁신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활동 경영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꾸러미"사업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약 3억원, 2021년에는 약 1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2년도에는 기재부의 예산을 25억원(국비 15억, 시군비 10억)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자문단"을 통해 선도 청년 인증사업자가 미인증 청년경영체의 멘토링을 통해 인증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하였고, 시제품 제작사업,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또한, 제품 사진 및 체험 동영상 제작, 수출지원, 가정간편식(HMR) 개발 연계, 온라인 안테나숍 개설 등 판로를 확대하여 2019년 14억원에서 2021년 66억원으로 판로 매출액이 약 371% 증가했다.

전남6차센터 송경환 센터장은 "전남이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민·관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1개의 인증경영체가 한 뜻이 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농업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6차산업으로의 발전을 전남에서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교육청, '원석을 갈고 닦아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화순영재교육원은 지난 14일 예년보다 빠른 개강을 했다. 이에 앞서 4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올해 달라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10일 영재선언식을 통해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들과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찬 시작을 알린 바 있다.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

올해 화순영재교육원은 '수학 교육 강화'를 역점으로 하여 AI 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학 수업을 전체 교과목의 50%로 편성했다. 초등 과학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간의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등 과학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등에 새로 도입된 융합영역의 경우 주제 및 전문 영역에 따라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에 따른 선택형 융합(STEAM) 수업을 실시한다. 발명영역의 경우 기존의 메이커스 교육과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을 활용한 융합적 발명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R&E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화순영재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진로특강과 체험활동,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을 더욱 빛나는 보석처럼 갈고 닦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이제 단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는 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융합적 사고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영재원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교육청, '농산어촌 유학생 격려 방문의 날' 행사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나주시 귀농귀촌 체험둥지에서 서울에서 왕곡초등학교에 농산어촌 유학생으로 전입한 2학년학생과 가족 및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농산어촌 유학생 격려 방문의 날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나주 지역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활동에 따른 유학 희망자가 등장하면서 교육청과 작은 학교 교원들에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통한 작은 학교 행복 만들기 사업에 희망을 제공한 것을 축하는 자리였다.

농산어촌 유학생 격려 방문에 참석한 왕곡초 마지성 교사는 작은 학교에 유학생이 전입해 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